



예로부터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며, 가축은 주인의 얼굴을 보고 자란다.'고 했다. 이곳 경상북도 포항시에는 매일 주인을 보며 자라는 소들이 있고, 그 옆에는 소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특별한 축산가가 있다. 전국 최고의 육우 개발과 낙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어 경북대구낙농농협 조합장으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안덕목장>의 박남용 대표. 수십 년간 목장을 운영하며 육우시장을 개척하는 그에게 축산의 비결을 들어본다.



### 경북 포항 안덕목장 박남용 대표

# 매일 내 얼굴을 보며 자랍니다

글 감대진 사진 엄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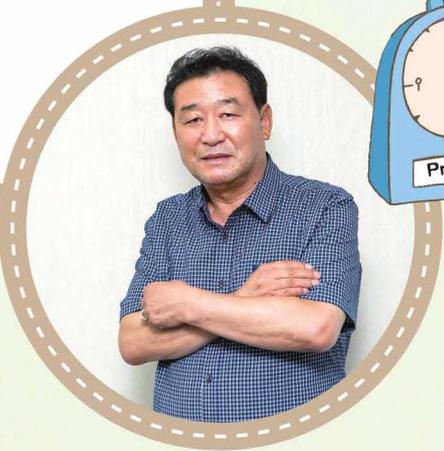
## 05 : 00 내 이부자리처럼 편안하게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일찍부터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이 있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있는 <안덕목장>의 박남용 대표(66)가 오늘의 주인공. 마치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100마리 소의 모든 변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반추는 잘하는지, 변 상태는 양호한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소의 건강을 살피는 일이 그가 맞이하는 일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내 이부자리라고 생각하며 관리합니다. 소나 사람이나 젖은 데서 잠을 잔다면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소의 건강체크가 끝나면 혹시나 우사의 바닥이 젖어있는지 직접 손으로 만져가며 확인하고, 젖은 면이 발견되면 그 즉시 바닥을 깨끗이 치웁니다. 이러한 아침 일상은 소가 병에 걸리는 일을 유독 싫어하는 박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지난 십 년간 육우농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그만의 노하우는 '안전과 질병은 환경에서 좌우된다는 것' 그래서인지 육우의 건강상태와 우사의 환경관리는 <안덕목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게, 미리미리 위생 관리에 신경 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장을 시작하면서 육우는 그에게 살펴줘야 할 또 다른 가족이다. 매일 이 시간, 게으름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박남용 대표는 아들과 함께 목장의 소를 살펴보고 나서야 또 다른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한다.



### 10:00 믿음직한 지역 일꾼으로

아침 일과가 끝나면 경북대구낙농농협 조합장으로 출근한다는 박 대표. 낙농육우시장 확대를 위해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대외적인 조합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송양회 이사로서 농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육우산업의 생존과 시장확대를 위해 유통기간 확충과 육우군납을 추진하고 있는 팔색조 일꾼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물어보니, 박 대표는 국내 최초로 네덜란드(낙농)를 다녀온 국비 유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젊은 시절 낙농선진국의 기술을 배운 청년이 국내 낙농업계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1980년도부터 4H사업발전과 농민후계육성사업에 앞장서면서 한국농업전문학교 현장교수로 활동했고, 이어 5선의 위업을 달성한 조합장의 길을 걸어왔다. 낙농·육우·농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자, 무지런한 일꾼. 조합장으로서 지역 농가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낙농육우의 베테랑으로서 관련 송사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그 덕분에 낙농육우 관련 사업가들에게는 '믿음직한 신배! 든든한 조력자!'로 불려지고 있다.



### 19:00 사업에서 든든한 기업으로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낙농육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노하우가 있어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2010년 FMD(구제역) 발생으로 육우가격이 폭락하면서 <안덕목장>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박 대표는 이를 큰 무리 없이 이겨냈다. 그 비결을 알아보니, 바로 위생과 사양관리였다. 첫째,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질병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념 아래, <안덕목장>의 환경은 1년 365일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육우의 건강 면에서는 최고의 복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둘째, 양질의 조사료와 면역능력향상을 중점으로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이다. 어린 송아지 때부터 충분한 초유 급여와 면역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이후 육성기에는 양질의 조사료와 골격 형성에 중점을 둔다. 이외에도 반추위 용적을 늘리고 단백질·에너지 섭취 능력 영양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품질개선이 이뤄지면서 육질 등급 거세우 78두 중 1'등급이 13%,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이 14.1%로 전국평균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박 대표의 아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안덕목장>의 사육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낙농육우산업이 평생 직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사업이자 든든한 기업으로 만들어 놓는 일반 남았습니다." 일평생 낙농육우산업인을 바리보며 전진한 축산가의 경험이 대대로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사업이자 기업도 없다. 대를 이은 <안덕목장>의 새로운 바람이 축산업을 이끄는 큰 힘이 되길 기대해본다. ☺

